

시조문학과 신선

김명희*

〈국문초록〉

사대부들의 전유물인 시조에서 신선은 어떤 역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시조에서 선인들이 빈도수가 많음을 기존의 연구사를 통해 밝혔고 시조라는 장르를 통해서 신선에만 집중하였다. 그중 적송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적송자는 사대부들이 좋아하는 적송자로 표현하고 있어 '적송자를 좇으리'가 관용어구처럼 쓰이고 있다. 이것은 적송자를 좇아야만 비로소 신선 대열에 낄 수 있다는 등식처럼 되어버린 결과다. 중국의 장량이나 범려도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적송자를 찾아 신선이 되어 영원 불사했다는 역사적 사건이 변모되어 전설로 신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조를 즐기는 사대부들도 마치 장량이나 범려처럼 자신들도 적송자를 좇겠다는 관념어적인 어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이태백은 한국문학과 뿔레야 뿔 수 없는 인물이다. 태백은 시선이며 주선으로 시조 문학에서는 비상 모티브를 가진 신선 또는 상천 모티브로 쓰이는 주선으로 노래 부르고 있어 풍류를 즐기는 사대부들에게 친근하게 인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신선으로는 진시황과 한무제를 들 수 있다. 두 황제는 불로초를 찾고 봉래산을 찾은 인물로 현실정치에서는 실각한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불로장생을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인물이어서 사대부들은 그런 면에서 이상적인 이상향은 없다는 다분히 현실적으로 다가가 유교사상에 입각해 현실에 만족하며 살자는 자족형으로 시조를 부르고 있었다. 따라서 두 황제의 역할은 부정적 이미지다. 시조에서 여선들도 등장하는데 그중 마고선녀, 서왕모, 무산선녀, 향아가 있다. 마고 선녀는 장수를 관장하는 할머니로 때로는 미녀로 쓰이고 있으며 서왕모는 불사약을 가지고 있는 신선으로 무산선녀는 운우의 정을 대변하는 미녀로 향이는 남편을 배반하고 외롭게 월궁에서 지내는 신녀로 표출되고 있다. 이들 선녀의 특징은 미녀이며 자상하고 섬세하며 애정시에 두루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강남대학교 교수.

핵심어 : 시조문학, 신선, 적송자, 사대부, 여선

1. 들어가는 말

시조는 사대부들의 전용물이었다. 사대부들은 음풍농월(吟風弄月)을 즐기며 생활 시조로써 삶을 풍미하게 하였다. 일상생활을 소재로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기능을 특특히 한 시조 장르에 사대부들은 한 술 더 떠 운상(雲上)인의 기질로 신선을 모티브로 삼았다. 그것이 신선이라는 제재로 쓴 신선 시조다.

신선사상이란 유희의 이야기처럼 위에서는 노자를 표방하고 그 다음에는 신선을 좇으며 아래로는 장릉을 따르다 하여 도가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결국 도가는 중국 고대의 민간 주술에다 장생불사의 신선사상 및 잡다한 다른 종교까지 가미된 것이라고 본다. 이를 도선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도교에 신선을 결들이면서 노장 사상에 연원하고 신선에 의해 심화되고 미신에 의해 잡다해진 일종의 이상주의적인 종교라 할 수 있다.¹⁾ 성기옥은 사대부 시가에 신선 모티브 시적 기능에 대해 '사대부들은 신선을 사상의 차원이 아닌 미학적 차원에서 수용하였다'고 하였다. ²⁾ 곧, 사대부들이 신선을 미학적으로 수용한 것은 유가적 세계관이 와해되는 단면이라는 것이다. 이봉원은 동양사상의 두 조류를 현실적 유가사상과 초현실적 노장사상 내지는 도선 사상으로 보았다. 그는 '노장 도선은 무위자연 사상과 은일 사상으로 비롯한 신선사상이 파생되었다'고 한다.³⁾ 이상원은 신선 모티브가 시조에 나타나기 시작한

1) 박기정, 「도교문학과 가사문학」, 《국어국문학》114, 국어국문학회, 1995, 133면.

2) 성기옥, 『국문학과 도교』, 태학사, 1998, 48면.

3) 이봉원, 「시조와 가사에 반영된 신선사상 연구」, 《덕성여대 논문집》2, 덕성여자대학교, 1973, 3-4면.

것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중반이 주요 활동 기간이라 했다.⁴⁾ 이것은 16·17세기가 봉당정치시대로 유가적인 현실정치로 인해 극도로 피로해진 사대부들의 심신을 북돋아줘야 할 다른 돌파구로 신선 모티브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한다.

이처럼 기존의 시조를 비롯한 국문시가의 신선 연구는 거의 모티브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구체적인 논문으로는 조재억, 최동원, 이창룡, 이종은, 한종구, 전일환, 박양기⁵⁾ 등이 신선 모티브가 수용되는 일차적인 소재에 관심을 두고 신선 사상과 도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 가운데 황형식은 <16·17세기 사대부 시조에 나타난 도교의식>에서 삶의 양상, 삶의 구현, 장생불사의 희원을 통해 도가적 시조문학은 당쟁과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결국 은둔생활을 하면서 생긴 선계나 선인에 대한 동경으로 신선사상이 생겨났으며 이것은 산수, 자연에서 문혀 영생불사를 꾀한 것이라고 하였다.⁶⁾

기존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낸 결과물을 기반으로 이번 논고에서는 시조에 나타난 신선들의 정체성과 조선 사대부들이 추종한 신선을 통해 신선의 역할을 고찰하고, 또한 신선들의 분포도와 빈도수를 통해 신선과 사대부, 신선과

4) 이상원, 「조선 중기 시조의 신선 모티브 수용과 그 역사적 의미」, 《어문논집》32, 민족어문학회, 1993, 220면.

5) 조재억, 「한국 시가에 나타난 신선 사상」, 《국문학 논집》2, 단국대 국문과, 1968.
 최동원, 「도가사상과 도교 사상이 국문학에 미친 영향」, 《부산대 논문집》10, 1969.
 이창룡, 「시조 문학에 나타난 현실도피사상」, 《한국국어교육 연구》3, 한국어국어교육연구회, 1973.

이종은, 「한국시가의 도교사상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1978.
 한종구, 「시조 문학에 나타난 도교 사상」,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0.
 전일환, 「시조 가사에 나타난 도가사상」, 《한국언어문학》21, 한국언어문학회, 1982.
 박양기, 「가사문학의 도교 사상적 배경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6.

6) 황형식, 「16-7세기 사대부 시조에 나타난 도교의식」, 《우리말글》21집, 우리말글학회, 20186면.

시조문학의 상관관계를 찾고자 한다.

2. 신선명의 분포도와 빈도수

신선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다. 신선은 주로 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산수 자연을 벗하며 강호에 은거한 사람들은 누구나 신선이라 자처하며 살았을 정도다. 신선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고구려 영류(榮留)왕 때로 추정되며 유교, 불교처럼 독립적인 세력을 가지고 발전하지 못하다가 우리 민족의 생활과 문화 사상에 자연스럽게 침투되었다고 본다.⁷⁾ 또한, '신라 시대 사람들이 산수에 소요하고 풍월을 음영했던 것도 선사상에 연유한 것이다'라고 한다.⁸⁾ 김시업은 <사대부 시가에 수용된 신선 모티브의 시적 기능>에서 노자의 무위자연사상을 표현, 장자의 망기(忘己)에 기반을 둔 은일사상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⁹⁾ 그러면서 신선 모티브의 범용성은 신선 유형의 검증이 필요하고 16·7세기에 신선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고 했다. 일반선, 지선, 여선, 천선, 시선이다. 일반선은 일반적인 보통명사로 쓰이는 신선, 진선, 선인, 선웅, 적선 등이고, 지선은 정영위, 적송자, 사선을 들었다. 여선은 서왕모, 무산무녀, 항아이며 천선은 옥황과 태을진신이다. 시선은 물론 이백과 소동파이다. 이봉원은 시조에 나타난 선어를 개관하였는데 상계인, 선인, 진인, 선웅, 신선, 선녀 서왕모를 비롯해 선인교, 천향주, 남극노인 등 2376수중에 120회가 나타난다고 했다.¹⁰⁾ 한종구는 시조문학에 투영된 신선어 중 선어 투영 빈도수를 발표하였

7) 조재익, 앞의 논문, 149면 개인용.

8) 한종구, 앞의 논문, 37면.

9) 성기욱, 앞의 책, 17면.

10) 이봉원, 앞의 논문, 8면.

다. 삼신산과 불로초·불사약이 52, 방사 49, 옥황, 선궁, 항아가 합쳐서 60, 이백이 42, 적송자 7, 견우직녀 9, 서왕모 2의 빈도수를 나타낸다고 했다. 그리고 신선어 투영 작품 수는 총 314 수로 밝히고 있다.¹¹⁾ 한종구는 신선어 사용 시조가 411수가 되며 풍류나 한정, 은일을 나타내는 자연애적인 심경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했으며 신선에 대한 관심과 동경이 시조문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이며 그것이 신선사상이라 했다.¹²⁾ 전재강은 도가 사상과 일정한 관련을 가진 작품은 5000여 수의 전체시조 작품 가운데 400수가 되어 불교 관련 시조 140여수 보다 많다고 했다.¹³⁾ 그러면서 애정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서 도가적 제재를 보면 직녀, 무산무녀, 노담, 서왕모, 반도, 옥황, 장주, 호접, 무릉도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이는 도가에서 말하는 애정을 실현하기 위해 옥황에게 호소하거나 이별을 꿈으로 극복하기 위해 호접몽을 가져 오기도 한다'¹⁴⁾고 해서 자연보다는 애정과 신선을 연결시켰다는 시각이 이채롭다. 신연우는 시조에 사용된 신화 소재를 통한 문학적 성격을 규명하기도 했다.¹⁵⁾

위의 기존의 논문에서 선어를 자주 사용한 이유는 '자연친화 사상이나 애정'을 나타내는 데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의 분류를 보면 신선이라는 어휘로 시조와 가사, 한시 등에 골고루 분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보통명사로 쓰이는 선어나 신선, 방사 등은 제외한 구체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시조에 자주 나타나는 빈도수에 의해 적송자, 한무제, 진시황, 이백, 서왕모, 무산무녀, 마고할미, 등을 통해 시조 속의 신선

11) 한종구, 앞의 논문, 48면.

12) 위의 논문, 54면.

13) 전재강, 「도가 관련 시조의 작자와 주제 문제」, 《어문학》73집, 한국어문학회, 2001, 446면.

14) 위의 논문, 463면.

15) 신연우, 『조선조 사대부 시조문학연구』, 보고사, 1997, 239면.

의 정체성을 통한 기능과 역할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선류의 지선, 천선, 옥진 등은 제외로 한다.

3. 시조문학과 신선의 상관관계

1) 적송자 : 쫓아가는 신선

시조문학에 특히 많이 나오는 신선 이름 중에 적송자가 있다. 『열선전』에는 적송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적송자는 신농때 우사이다 수정을 복용했으며 그 비법을 신농에게 가르쳤다. 불속에 들어가 스스로 태울 수 있었다. 종종 곤륜산 위에 이르러 늘 서왕모 석실 안에서 머물렀으며 바람과 비를 따라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염제의 막내딸이 그를 쫓아 역시 신선이 되어 함께 떠나갔다. 고신(高辛)때에 이르러 다시 우사(雨師)가 되었다. 오늘날의 우사는 여기에서 근본한다.¹⁶⁾

적송자는 중국 신화 중에 신선으로 후에 도교에서 존귀하게 신봉하는 신선이다.¹⁷⁾

이 몸이 강호의 잇서 세스를 어이 알니
그리느니 티빅이요 생각느니 즘첨이라
언제나 적송즈를 돛츠 아도 벽곡.¹⁸⁾

이 몸이 강호에만 묻혀 있어 세상사를 알 수가 없다. 이미 속세를 떠난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초장에서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시선인 이태백을 그리

16) 유향 지음, 김장환 옮김, 『列仙傳』, 예문서원, 1996, 51면.

17) 박기정, 앞의 논문, 156면, 재인용.

18) 李世輔[字 左甫], 《風雅》204, 3259.

위하며 살고 자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초탈한 인생이다. 화자 이 세보는 언제나 적송자를 좇아가는 삶이라는 주장이다. 작자는 강호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마치 태백, 자침을 매개체로 삼고 적송자를 좇아 신선처럼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있다. 곧, 적송자를 좇는 까닭을 노래하고 있다고 본다.

萬古歷代 人臣之中에 明哲 保身 누구누구

張良은 附謝病辟穀 하야 赤松子를 좇차 놀고 范蠡는 五湖烟月에 吳王이 正周愁를 扁舟에 싣고 간이

아마도 無後淸名은 또 업슨가 호노라.¹⁹⁾

중국 역사다. 중국에 역대 신화된 사람 중에 총명하여 사리 밝은 사람이 누구나 하면 장량이다. 그 장량이 적송자를 좇아 신선이 되어 놀고 범려는 오호 연월에 왕이 정주수를 편주에 싣고 가니 아마도 그렇게 맑은 이름은 아마 또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범려는 서나라 사람으로 주나라에서 벼슬하여 태공망을 스승으로 삼았다. 계피를 복용하고 물을 마시기를 좋아했다. 월나라 대부가 되어 구천을 보좌하여 오나라를 격파하였다. 그 후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떠다니다가 성명을 바꾸고 제나라, 陶(도) 땅에서 억만금의 재산가가 되었으나 재산을 모두 버리고 난릉에서 약을 팔았다는 고사가 《열선전》²⁰⁾에 나온다. 후세인들은 그를 칭송하며 노래 부르기를 태공망을 스승삼아 도업을 전수받고 월나라에서 공을 세운 뒤에 잠적함에 탄식하고 천금을 헌신처럼 버렸다는 것에 맑은 기운을 가진 신선으로 기리고 있었다. 그들이 최종으로 따르는 신선은 적송자라는 것이다. 이처럼 적송자는 여러 사람들이 좇아가는 신선 중에 으뜸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海東歌謠(一石本)》315, 1392.

20) 김장환, 앞의 책, 121면, 범려편.

鞠躬盡瘁 ㅎ야 죽은 後에 말을 전이
漢天下 安危를 左右祖에 ㅄ쳐 두고
赤松子 ㅄ출엿노라 거ㅄ말도 ㅎ러다.²¹⁾

심신을 다 바쳐 국사에 전력하는 것은 죽은 후에야 말 것이니 한 나라 천하의 안위를 좌우 신하들에게 맡겨 두고 적송자를 쫓겠노라 거ㅄ말도 하였다는 한 무제 고사를 형상화 하였다.

말 업슨 靑山이오 態 업슨 流水로다
王喬 赤松 外에 날 알 니 업건마는
어디서 망녕엿 거슨 오라 말라 ㅎ느니.²²⁾

말이 없는 청산이오, 형태 없이 흐르는 물이로다. 신선인 왕자교는 이수 낙수에서 생활을 즐겨 부는 신선이다. 그 소리가 마치 봉황울음소리 같았으며 학을 타고 홀로 떠나니 마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주었다는 신선이다. 마치 바라만 볼 뿐 가까이 갈 수 없는 신선 왕교와 적송이다. 그런 두 신선 이외에 나를 이는 이가 없을 텐데 어디서 망령 난 것들이 나를 오라 말라 하느냐는 책망의 어투다. 화자와 왕교와 적송자는 동격의 선인의 경지를 갖춘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五世讐 갑흔 後에 金刀의 業을 널워
三萬戶 辭讓 ㅎ고 赤松子 ㅄ차 가니
아마도 見機高蹈는 子房인가 ㅎ노라.²³⁾

21) 《海東歌謠(一石本)》425, 443.

22) 《靑丘永言(珍本)》311. 《靑丘永言(가람本)》327.

23) 白光勳[字 彰卿, 號 玉峰], 《樂學拾零》195 / 《靑丘永言(六堂本)》98, 2948.

오세에 걸친 원수 깊은 후에 금도의 업을 이루었으나 삼만 호의 녹을 사양하고 속세를 떠나 적송자를 쫓아가니 이미 낚새를 알고 은거한 장자방이 아닌 가라는 장자방의 고사를 원용한 노래다. 장자방은 한고조의 신하였던 장량이다. 그는 황석공에게 병법을 배우고 한고조를 도와 초나라 항우를 멸하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장량은 그 후 현실정치의 허망함을 먼저 깨닫고 적송자를 쫓아 신선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숨은 곳은 지금 장가계로 이름난 명소다. 이 노래 역시 소원 성취를 하고 부귀영화가 눈앞에 펼쳐졌으나 세사의 허무함을 깨달은 자방이 먼저 알고 속세를 떠나 적송자를 쫓아 선계에서 노닌다는 고사다.

靑藜杖 드터지며 石逕으로 도라드니
 雨三 仙庄이 구름 속에 잠겨세라
 오늘은 塵緣을 다 떨치고 적송자를 좃츠리라. (무명씨)

구름 속에 잠긴 산간이 선경이다. 명아주 지팡이 짚어가며 돌길로 돌아드니 신선이 구름 속에 잠겨 있다. 오늘만이라도 화자도 적송자와 같은 삶을 추구하겠다는 다짐이다. 화자는 속세의 인연을 다 떨치고 적송자를 따르겠다는 자연친화적인 신선 노래다.

적송자는 일치감치 선계에 들어간 신선이다. 열선전 맨 처음 등장하는 신선이름이다. 이러한 적송자를 사대부들은 신선의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신선을 쫓아야만 선계에 들어가 신선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치 관용어구처럼 신선이 되겠다는 것은 '적송자를 좃으리라'라는 다짐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공식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적송자를 쫓는데 꼭 함께 등장하는 인물로는 자방과 범려다. 그들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을 눈앞에 두고 은거하여 신선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유로 장자방과 범려의 고사를 원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음도 너, 나 할 것 없이 같고 상투적으로 쓰고

있음도 같다. 이것은 조선조 사대부들 자신들도 적송자를 좇아 신선처럼 살고 싶다는 현실도피적인 욕망을 단조롭게 토로하고 있다는 증거다. 선인인 적송자를 쫓아가야 선인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적송자인 신선의 이름을 거론하며 노래를 즐겼던 것이다. 사대부들은 적송자를 쫓는 것이 본인들의 마지막 이승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사대부 계열에서 초탈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적송자와 자방, 적송자와 태백이 함께 등장하는 것도 시조에 나타난 적송자 쫓아가기의 한 특징이다. 이와 같이 적송자는 신선을 동경하는 명철보신(明哲保身)이나 전가(田家) 한거(閑居)나 소요(逍遙)유람, 은일 등에 자주 인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태백 :上天 모티브

시를 잘 지어 시선(詩仙)으로 칭해지며 한국문학에서는 적선(謫仙)으로 통용되는 이백이다. 이백은 채석강(採石江)에서 완월(玩月)을 타다가 기경(驥鯨)상천한 모티브로 우리 시가에 흔하게 표출된다. 술을 좋아한 주선(酒仙)으로도 널리 알려져 유명, 도감과 함께 등장하기도 하다.

江山도 도홀시고 鳳凰臺가 써 왓는가
三山은 半落青天外오 二水는 中分白鷺洲로다
李白이 이제 이셔도 이 景밧고 못 쓰리라.²⁴⁾

강산이 좋구나. 강산의 경치가 봉래산 봉황대를 떠 온 것 같다. 세 갈래 산은 청천 밖으로 반쯤 걸려 있고, 두 갈래 물은 백로주로 가운데로 나뉘었다. 이태백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이 같은 묘사 밖에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경

24) 李鼎輔[字 士受, 號 三洲], 《樂學拾零》1095 / 《海東歌謠(一石本)》296, 137.

에 버금가는 경치를 읊고 있다. 이태백은 선경과 연관 지어 떠 올린 시선으로 인용하고 있다.

蕭湘江 細雨中的 누역 샷샷 더 老翁아
 빈 비 흘니 저어 向흐느니 어드메노
 李白이 騎鯨飛上天흐니 風月 실너 가노라.²⁵⁾

소상강에 내리는 세우 중에 도룡이 샷샷 쓴 저 늙은이가 빈 배 흘러가는 대로 저어 향하는 곳이 어디일까 그곳이 아마 '이백이 기경비상 천하하고 풍월 실러 간 곳이 아닐까'라는 노래에서 화자는 중국에 소상강을 무대로 늙은이를 등장시키고 빈 배라는 무위의식에, 이태백을 조화시켜 이태백이 고래를 타고 하늘로 날아가 달을 실러 갔다는 설화를 접목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시조 문학에 나타난 이태백은 술과 선경에서 떠오르는 이름으로 잠시나마 진세를 떨치고 싶을 때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시조 문학에 이백이 많이 등장은 하지만 보통은 주선으로 도잠, 유영과 함께 술을 마시며 취락하며 살지는 현실 퇴폐적인 노래로 자주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인생은 유한하니 술 마시고 놀지 않으면 허망하지 않겠느냐는 유흥을 권유하는 노래에 주로 이태백을 인용하고 있다.

3) 진시황·한 무제 : 부정적 시선

진(晉) 한(漢) 대에는 중국에 널리 유포된 신선 사상 중 신선의 대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황제가 진시황제다. 진시황과 함께 붙어 다니는 선어는 불로초, 봉래산, 불사약, 동남동녀, 방사 등이다. 시조에 나타나는 진시황과 사대부 화자들은 어떤 관계망을 설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진시황, 한 무제

25) 李後白[字 季眞、號 青蓮], 《青蓮集》, 2368.

까지 기록하게 되어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을 찾기에 이른다. 이른바, 봉래 전설이다. 논자는 이미 봉래 전설에 대해서는 논문으로 발표한 바²⁶⁾ 있어 이곳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 전설이 시조에서는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대해서만 밝히고자 한다.

巫山 열두봉에 저절로 노는 저 학선아
 秦始皇 漢武帝도 求之不得 허여거든
 하물며 날 거튼 一介 書生.²⁷⁾

일개 서생인 나는 부정적이다. 신선 대열에 낄 수 없다. 그 이유는 초장에 무산에 노는 학선은 저절로 놀고 있고 진시황제, 한무제 같은 천하를 통일하고 절대 권력을 지닌 황제들도 불로초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인 나는 선계에 가기는커녕 이승에서 불안한 생을 살아야 한다는 푸념이다.

白髮이 公道 | 업서 넷 사람의 恨 恨 비라
 秦皇은 採藥 하고 漢帝은 求仙 하였나니
 人生이 自有 天定 하니 恨 恨 줄 리 이시랴.²⁸⁾

한무제는 선도를 구하고자 했고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고자 했다. 두 사람은 채약과 구선이 삶의 지향점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하지 못했다. 하물며 백발이 성성한 늙은이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는 자조적 어조지만 화자는 한도 갖지 않겠다는 소극적이거나 의지도 보인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겠다는 은사들의 삶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26) 김명희, 「산동성 연태 지방의 신화 전설」, 《운지논총》제17집, 사단법인 운지학회, 2007.

27) 《調 및 詞》27, 1517.

28) 申喜文[號 明裕], 《靑丘永言(六堂本)》268, 1704.

신농씨 모으든 약을 진씨황제 구하랴고
동남 동여 五百人을 海中의 보너더니
그 고지 弱手 三千리니 어이 오리.²⁹⁾

위의 시조도 장생술이나 진시황 불사약을 소재로 하고는 있으나 신선세계를 부정하는 노래다. 신농씨 때부터 모으던 신약을 진황이 구하려고 500여명의 어린 남녀를 보냈으나 물길이 삼천리이니 어찌 돌아오겠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長生術 거짓말이 不死藥을 제 뉘 본고
秦皇塚 漢武陵에 暮煙秋草 뿐이로다
인생이 一場春夢이라 아니 놀고 어이리

장생술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불로초는 누가 보았겠느냐는 부정적인 어조의 노래다. 따라서 인생은 일장춘몽이니 잘 놀고 지내자는 현실적인 노래며 취락을 권유³⁰⁾하고 있다.

秦皇이 착한 英雄이라마는 長生術 고디 듯고
童男童女 五百人을 徐市의게 붓쳐거다
제 敢히 石面에 이름시겨 지난 줄을 알게 하다

안민영은 한 술 더 떠 진황이 500여명을 방사 서시에게 부쳐 보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바위에 새긴 기록만 남을 뿐 허망하다는 사실³¹⁾을 읊고 있

29) <樂府(羅孫本)>307, 2544.

30) <작자미상 : <정본시조대전>2513>, 문북회, 『한국 신선시의 이해』, 형성출판사, 2005, 261면

31) <안민영 : <정본시조대전>2697>

다. 조선이라는 공간은 신선세계를 부정하는 사대부가의 세력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선세계를 부정하는데 인용되는 인물이 진황과 무제다. 그들은 실제로 역사적 인물로 신선을 쫓고 신선처럼 장생하려 했으나 무제는 봉래섬을 보고 돌아갈 뿐이고 진황은 실각 당하는 아픔을 겪는 등 불우하게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神仙이 잇단 말이 아마도 虛浪 訶에
 秦皇 漢武는 씨드를 줄 모로던고
 아마도 心淸 身閑하면 眞仙인가 訶노라.³²⁾

진시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직설적인 토로다. 신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허무맹랑하다'는 표현이며 신선이 있음을 믿고 신선을 쫓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진시황제 한무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신선에 대한 정의도 내리는데 마음이 말고 몸이 한가하면 바로 참 신선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며 화자 자신이 곧, 신선 같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사대부 시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시조에서는 진시황, 한무제가 허랑한 사실을 쫓는 허랑한 황제로 대변된다.

秦始皇 漢武帝는 不死藥 먹단 말가
 驪山 茂陵에 皇帝 무덤 아니 본가
 두어라 非百歲 人生이니 아니 놀고 어이 訶리.³³⁾

무제는 봉선(封禪)과 통천대(通天臺)를 통한 불사등선의 욕구도 숨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제의 봉선 의식을 치수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 단순한

32) 金振泰[號 君獻]. 《樂學拾零》460 / 《靑丘歌謠》34, 2552.

33) 《解我愁》442, 5481.

불사등선이 아닌 치수를 위한 일환으로 서왕모와의 협력관계를 강조하였다고 보는 것이다.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시조문학에서는 진시황, 한무제를 제재로 한 작품은 모두 부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두 사람 다 신선의 계열에 들고자 했으나 들지 못했다는 점이고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해 장생하고자 했으나 불로초를 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방사에게 속았다는 허무한 역사적 사실을 들었고 두 번째는 두 사람 다 수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니 조선인들은 두 황제도 그러하거늘 범부인 우리는 그저 현실을 즐기자는 시선으로 대하고 있다. 진시, 무제 두 황제의 시조의 출현은 결국 현실에 충실하고 만족하며 살자는 논리로 다가선다. 두 황제의 신선되기 노력은 조선인들에게는 비극적인 삶으로 여겨졌고 실패와 좌절을 안겨준 두 황제의 생은 이루지 못할 허망함에 대한 자탄의 노래로 대변하고 있다. 그 외 의 시조 문학에 등장하는 신선은 천세의 노인이라고 일컫는 안기생이다. 안기생은 도교의 신선으로 전설에 의하면 진시황이 동해에서 같이 있었다고도 하며 『사기』, 『열선전』, 『고사전』 등에 보이는 가장 오래된 방사이다. 동방삭은 『사기』, 『골계(滑稽)전』에 나오는 인물이며 열선전과 한무제 고사에서 서왕모의 반도를 훔쳐 먹어 삼천갑자(三千甲子) 동방삭(東方朔)이라는 장수의 방사로 알려져 내려온다. 시조에는 안기생보다는 동방삭이 자주 인용된다.³⁵⁾

4) 마고선녀 · 서왕모 · 무산신녀 · 항아 : 여선들의 활약

서왕모 전설과 같이 중국에 널리 알려진 전설의 하나가 마고선녀 전설이

34) 이성규, 「한무제의 서역원정 · 봉선 · 황하치수와 우 · 서왕모 신화」, 《동양사학연구》 72, 동양사학회, 2000, 52면.

35) 紅顏 白髮 저 老人은 東方朔의 벗이런가
서왕모 비파 타고 적송자 잔 드리니
오늘에 人間 신선을 처음 본 듯. 《雜誌(平洲本)》271, 4631.

다. 갈홍의 신선전에 나오는 마고는 18세의 미녀인데 우리 문학에는 할미가 되어 내려온다. 이것은 마고(麻姑)의 이름에서 고(姑)자의 훈을 그대로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보았다.³⁶⁾ 마고는 중국 신화 중에 여신으로 서왕모와 함께 우리문학 가사와 시조에 자주 인용되어 나타난다. 18세의 미려한 여인 마고가³⁷⁾ 우리 문학 가사, 시조에는 할미로 둔갑하여 인용되는 마고 신화를 반고의 거인 화생설의 신화적 원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본 견해가 있다.³⁸⁾ 곧, 마고할미는 큰 거인으로 상징되며 드르렁 거리며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동안의 세상은 정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마고할미의 기지개가 백성들에게 시원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혼돈이던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을 달아 주었고 마고할미의 오줌은 강물이 되어 발을 움직일 때마다 태풍이 되고 마고할미가 토하면 섬이 되고 하는 등의 모든 행위는 단군신화의 인본주의적 발상³⁹⁾이라고 했다.

서왕모는 금모(金母), 왕모낭낭, 서모라고 하며 도교 여신 중에 최고의 여신선이며 중국 고대 신화 속의 반신반인의 여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자는 <난설현과 소설현 시에 나타난 서왕모>⁴⁰⁾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서왕모의 형상은 사람과 호랑이의 모습으로 휘파람을 잘 불었다는 신으로 <산해경(山海經)>, <침중서수신기(枕中書搜神記)>, <열자(列子)>, <사기(史記)>, <열선전(列仙傳)>, <집선전(集仙傳)>, <한무제(武帝) 내전(內傳)>, <목천자전(穆天子傳)>, <한무제 고사> 등에 보이며 우리 문학 가운데 가사와 시조 한시 등에 자주 보인다.

무산선녀는 무산의 절경으로 더욱 유명해진 전설이다. 무산선녀 사랑은 매

36) 한중구, 앞의 논문, 42면, 이종은, 앞의 논문, 120면.

37) 박기정, 앞의 논문, 155면 재인용.

38) 표정옥, 『현대 문화와 신화』, 연세대 출판부, 2006, 70면

39) 위의 책, 71면.

40) 김명희, 「난설현과 소설현 시에 나타난 서왕모」, 『우리문학』 제17집, 우리문학회, 2004.

우 안타깝다. 무산무녀는 염제의 셋째 딸 요희를 말하는데 그녀는 어린 나이에 요절하고 만다. 그리고 요초라는 풀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 요초의 열매는 사랑의 묘약이다. 전국시대 초나라 회왕이 무산에 구경 왔다가 꿈속에서 요희와 사랑을 나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그걸로 끝이 난다. 그녀는 아침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비가 되어 내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⁴¹⁾

월궁 항아는羿의 아내다. 항아는 천상의 여자였으나 예의 타락으로 함께 神籙을 잃었다. 남편 예가 서왕모의 불사약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찾아가 불사약을 얻어 온다. 서왕모는 예에게 그 약을 주면서 이 약을 그대 부부가 나누어 먹으면 불로불사할 것이고 혼자서 먹으면 천상에 올라 신이 되는 소원도 이루게 될 것이라 한다. 예는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집에 오자 약을 아내에게 맡기고 택일하여 가장 좋다는 날 둘이 같이 먹기로 하였다. 그에겐 천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항아의 생각은 달랐다. 항아는 천상의 여인으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은 남편 때문이라 생각했다. 여신이 되기 위해 항아는 남편이 없는 날 약을 꺼내 혼자 다 마셔버렸다. 항아는 그 약을 먹자 몸이 이상한 것을 느꼈다. 몸이 차츰 가벼워지더니 발이 땅에서 뜨고 어느 곁에 몸이 창밖으로 뚱뚱 떠오르는 것이다.

천상의 달이 별들로 에워싸여 있었으며 항아는 계속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월궁으로 몸을 피하고자 날아갔다. 월궁에 내리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등뼈가 오므려 붙고 짧아지고 배와 허리통은 부풀어나고 목과 어깨가 붙은 두꺼비가 된 것이다. 미모의 선녀는 두꺼비가 되어 월궁을 지키는 두꺼비로 변신한 것이 월궁 항아의 전설이다. 이 전설은 관대해져서 하얀 토끼와 계수나무가 있는 월궁에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항아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시인 이상은은 항아에 대해 “영약 훔친 것을 응당 뉘우쳤으리니, 바다 같은 푸른 하늘에서 밤마다 애달파라.”라고 읊어 그녀에 대한 연민과 비난

41) 위의 책, 44면.

을 함께 나타냈다. 그 뒤로도 그녀에게는 오직 적막만이 길이길이 따라 붙거나 가혹한 형벌로 남편에게 등을 돌린 비정한 여인으로 상징된다. 42) 위의 여신 가운데 마고를 제재로 하고 있는 시조를 보면

님과 나와 다 늙어시니 또 언지 다시 젊어 불고
 天台山 不老草를 麻姑仙女 | 알년마는
 아마도 雲山이 疊疊하니 모를 더 업서 호노라.⁴³⁾

임과 내가 이미 늙었다.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현실이 가로 놓여있다. 그런데, 묘책은 있다. 천태산에 불로초가 있다는 것을 마고선녀만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영약은 구름 산으로 첩첩이 쌓여 있어 찾을 길 없다는 한탄이다. 늙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며 마고선녀는 장수를 관장하고 있건만 마고를 만날 길이 없는 현실적 한계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조에서는 마고의 역할은 수명을 관장하는 할미로 쓰인다. 한국 전역에 분포되어 나타나는 마고할미는 일정 지역에 산이 형성된 곳이면 마고할미가 자리 잡았다고 한다.⁴⁴⁾ 마고할미는 이처럼 지모신적(地母神的)인 존재로 출산(出產)과 생산(生産)의 신적 권능도 대표한다. 이것은 천부신에 대한 지모신의 개념으로 분화된 존재다.⁴⁵⁾

洛陽 東村 梨花亭 麻姑仙女 집의 술 너단 말 반겨 듯고
 靑驢 鞍裝 지어 금돈 싣고 드러가 가서
 兒孩也 淑娘子 계신야 門 밧기 李郎 왔다 살와라.⁴⁶⁾

42) 이훈중 편역, 『중국고대신화』, 범문사, 1982, 126-151면.

43) 朴道淳, 《정본시조대전》719, 1023. 문복회, 앞의 책, 256면.

44) 천혜숙, 「여성신화 연구 대모신 상징과 그 변용」, 《민속연구》1, 안동대학교 민속학 연구소, 1991, 7면.

45) 위의 논문, 21면.

서울 동촌 이화정에 마고선녀 집이 있다. 그 집의 술이 익었다는 소리를 듣는 반가워 당나귀에 안장을 지어 돈을 가득 싣고 가서는 이씨 성의 낭군 왔다고 알려 달라는 것이어서 이 시조에 쓰인 마고 선녀는 기녀를 대유한 것으로 보인다. 신화 속의 나오는 마고 선녀의 직능이나 역할과는 다른 술시중을 드는 미녀여서 이 시조에서는 18세의 마고 는 미인이라는 등식의 대칭이 아니가 한다.

시조에 나오는 마고의 기능은 단순하게 불로초를 알고 있는 장수를 관장하는 정도로 인용되었을 뿐이며 설화나 소설에 나오는 구체적인 마고의 역할이 없음이 특징적이다.

서왕모는 《목천자전》에서 서방의 군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해경》과는 다른 존재로 변형되어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서왕모는 《장자 대중사편》에 신비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며⁴⁷⁾ 괄본(郭本) 《산해경》18권은 복합적인 성격의 책으로 이에 실려 있는 서왕모의 기록이 신화적 요소를 지닌 기록이며 신과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서쪽으로 350미터 가면 옥산이 있는데 서왕모가 기거하는 곳이다. 서왕모는 그 모습이 사람과 같고 표범의 고리와 호랑이 이빨을 하였으며 휘파람을 잘 분다. 형클어진 머리에 勝을 이고 있으며 재해 역병 형벌과 죽음을 주재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서왕모는 인간이 아닌 옥산에 기거하는 산신이다.⁴⁸⁾ 서왕모는 하늘의 일부를 다스리는 기능을 지닌 산신인 것이다. 서왕모는 늘 삼청조(三靑鳥)가 시녀로 먹이를 구해온다. 이러한 산신이 인간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난다. 서왕모의 기록은 〈서산경(西山經), 해내북경(海內北經),

46) 《靑丘永言(六堂本)》783, 657.

47) 오문의, 「서왕모 신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33면.

48) 위의 논문, 11면.

대황서경(大荒西經)에 모두 보인다. 또한 서왕모가 곤륜산에 살고 있다고 해서 곤륜산과 서왕모를 연관시키고 있다. <해내서경>에 보이는 곤륜산은

해내의 곤륜산은 서북쪽에 있는데 제의 下都이다. 곤륜지구는 사방 팔백 리이고 높이는 萬仞이나 된다. 그 위에는 木禾이라는 곡식이 있는데 길이는 五尋이며 둘레는 다섯 아름이다. 거기에는 아홉 우물이 있고 옥으로 난간이 있다. 아홉 개의 문이 있는데 開明獸가 그것을 지키며 여기가 百神이 있는 곳이다. 이곳은 팔방이 바위로 둘러싸인 赤水 근방에 있는데 쫓가 아니면 이 산을 오를 수 없다.⁴⁹⁾

이처럼 서왕모는 여선의 주재자로 도교의 여신 중에 최고의 시선이다. 오래된 전설에 반도연과 반도의 이야기는 널리 유포되어 나타난다. 또한 서왕모와 관련한 약수(弱水) 삼천리가 있다. 곤륜산은 서왕모가 거처하는 곳으로 약수삼천리를 극해 있고 이 물은 비선(飛仙)이라야 건널 수 있다.⁵⁰⁾ 중국 신강성(新疆省)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천산(天山) 정상에 천지(天池)가 있다. 호수는 차고 맑으며 경관이 빼어나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는데 이곳을 서왕모가 살던 선경요지라 한다. 천지에서 서왕모가 목욕을 하던 연못이라 전하고 양이 뛰어 놀고 있는 건너편 언덕에 서왕모 사당이 있다. 서왕모 사당은 접근이 어려워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서북의 거대한 산악 지형과 사막 그 가운데 곤륜산을 정점으로 나타난 천지의 신비함은 신화 전설이 유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논자는 그곳을 방문 후 난설현 시에 나타난 서왕모의 정체성을 발표할 수 있었다. 시조에 나타난 서왕모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넘그려 깊히 든 炳을 무슴 藥으로 고쳐 넣고

49) 위의 논문, 28면 재인용.

50) 한중구, 앞의 논문, 46면.

太上老君의 草選丹과 西王母의 千年 蟠桃 落迦山 觀世音 甘露수와 三山
十洲 不死藥을 아모만 먹은들 하릴소나

아마도 그리던 님을 만나 랑이면 귀 良藥인가 흥노라.⁵¹⁾

위의 시조는 영·정조 시대의 김묵수⁵²⁾의 작품으로 증장이 길어진 엷시조다.

이 작품은 임의 부재를 노래했다. 임이 그리워 병이 난 상태를 말하고 무슨 약으로 고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이어서 당대의 명약으로 꼽히는 이름이 열거된다. 노자가 만들어 썼다는 초선단, 서왕모의 반도, 낙가산의 감로수 등 불사약이 있으나 마음의 상사를 치유하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화자의 토로다. 따라서 태상노군이나 서왕모는 명약을 만들어내는 신선이기는 하나 상사병은 치료할 수 없는 약을 만들 뿐이며 그들 신선의 역할도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치료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지닌 신선임을 드러낸 시조다. 서왕모와 관련된 한 나라 때 그림에는 시종이 손에 나무처럼 생긴 것을 들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원가(袁珂)는 이를 불사의 나무로 본다고 했다. 이는 후세에 선도가 반도로 변한 듯하다.⁵³⁾

南薰殿 달 발근 밤에 五絃琴 끈어지고

洛浦로 가는 배는 쏘각 달 無光 속에 초회왕의 원혼이라 雲間에 나는 새는
西王母의 片紙 물고 요지로 돌아 들 제 강안의 굴농하니 黃金이 千片이요 노
화의 風起하니 白雲이 滿點이라

아마도 地江山 第一景이 이 아년가.⁵⁴⁾

51) 金默壽[號 始慶], 《靑邱歌謠》54 / 《靑丘永言(六堂本)》675, 1028.

52) 김묵수는 호가 시경이고 생몰연대는 미상이다.

53) 신연우, 앞의 책, 239면.

54) 《雜誌(平洲本)》29, 758.

太乙 仙官 擇日하고 王母 仙女 보낸 술로
삼가 인연 매진 후에 五福만을 祝賀하니
부모는 화순코 자손 창성 일러 무삼.⁵⁵⁾

삼청조는 삼위지산(三危之山)에 살면서 곤륜산을 내왕하며 서왕모를 위해 음식을 구해 오는 등 잡사(雜事)를 돌보는 존재로 그 새의 형상은 몸의 깃털은 파랗고 머리털은 붉으며 눈이 검은 새임을 알 수 있다. 서왕모 신화에서 삼청조는 서왕모의 왕림을 알리는 사자로 등장하고 있다. 청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하늘을 나는 가벼운 새의 자유로운⁵⁶⁾ 이미지가 주축을 이룬다고 하겠다. 오문의는 서왕모 신화가 역사화 되는 과정에서 신선사상이 가미되어 신선이라는 존재로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고 했다.⁵⁷⁾ 서왕모가 불사의 약을 관장하는 신선이며 낙원의 색채를 느낄 수 있는 신선이미지가 가미된다. 따라서 시조에 나타난 서왕모도 역사적 존재가 아닌 신적인 존재로 부각됨을 알 수 있다. 절세의 미인 이미지가 서왕모의 이미지다. 이 같은 서왕모의 민간전승 정서는 서왕모-금모, 서왕모-동왕부과 같은 종교적인 전승보다는 요지에 살고 있는 미모의 아름다운 여인이며 신비스럽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신선으로 광범하게 유전되어 왔다. 서왕모 신화는 서왕모-요지, 서왕모-불사약, 서왕모-목천자, 서왕모-반도(선도)의 문학적 정서를 구축하며 더 나아가 서왕모-불사약, 월궁항아, 마고와 함께 다양한 이미지로 시조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시조에서의 서왕모의 정체는 좋은 선경에 청조를 앞세워 인간을 관장하며 착하고 아름다운 선녀며 두 번째 시조에서처럼 오복을 축하하는 연회에 술을 하사하는 인자하고 자상한 어머

55) 《時調(關西本)》53, 4343.

56) 육완정, 「서왕모 신화의 문학적 수용」, 《인문과학 연구 논총》13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95, 299-322면.

57) 오문의, 앞의 논문, 41면.

니상 같은 여선의 모습이다. 다음은 무산무녀들의 역할이다.

巫山 神女 들이 東嶺川의 조츠 와서
 桃源은 여기로다 十二峯은 어드메고
 저 건너 저 峯이 괴라호디 나도 몰라 ㅎ노라.⁵⁸⁾

무산무녀들이 찾아와 노는 곳이 선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곳 동령천이 도원이니 무산 무녀가 놀았다는 십이봉이 어디냐는 반문이어서 자신들이 제일 아름다운 장소에서 노닐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楚襄王은 무슴 일로 人間 樂事 다 바리고
 巫山 十二峯에 雲雨夢만 심각는고
 두어라 神女의 生涯는 이 썸인가 ㅎ노라.⁵⁹⁾

초희왕 고사를 인용해 세상의 온갖 일을 다 놓아두고 무산 십이봉에서 노는 운우의 정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무산 신녀의 생애를 생각하며 남성인 화자가 애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粉壁紗窓 月三更에 傾國色엿 佳人을 만나
 翡翠衾 나소덥고 琥珀枕 마조 베고 이곳치 서로 즐기는 양은 一雙鴛鴦이 遊
 綠水之波瀾이로다.
 楚襄王 巫山仙女會를 부를 줄이 이시라⁶⁰⁾

달 밝은 삼경에 나라를 가울게 할 정도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다. 서로 비

58) 姜復中[字 載起, 號 清溪], 《清溪歌詞》53 / 《水月亭歌帖》, 1515.

59) 《歌曲源流(國樂院本)》384.

60) 작자 미상, 《정본시조대전》1333.

취 이불을 나누어 덮고 호박 베개를 마주 베고 서로 운우의 정을 기리는 것은 한 쌍의 원앙새가 푸른 물결을 치며 노는 것 같다 리는 것이어서 서로 사랑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듯 초양왕이 무산에 와서 선녀들과 모임을 가질 줄 알았겠느냐는 것이다. 아마, 초희왕도 무산무녀회를 늘 즐겼을 것이라는 노래다.

어화 네여이고 반갑고도 놀라왜라
 雲雨陽臺에 巫山仙女 다시 본듯
 암아도 相思一念이 病이 될까 ㅎ노라⁶¹⁾

상사의 병이 나려고 할 때 쯤 반갑고도 놀랍게 사랑하는 여인을 보았다. 마치 초희왕이 무산의 선녀를 만난 듯하다. 아마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상사의 병이 나지 않았을까 리는 생각을 읊조렸다.

이처럼 시조에 자주 인용된 무산선녀는 염제 신농씨의 딸 요희(瑤姬)가 죽어서 된 신이 제제가 된 것이다. 염제는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만 요절한 것이 애석하여 그를 무산의 구름과 비의 신으로 삼았다. 전국시대 말기에 초희왕이 운몽지역을 여행할 때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이 여신을 사랑해 주었다고 한다. 아들 초양왕이 그곳을 여행하다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전시인 송옥(宋玉)에게 그 이야기로 작품을 만들게 했으니 그것이 고당부(高唐賦)와 신녀부(神女賦)라 한다.⁶²⁾ 그런 신화 전설이 시조 작품에서는 ‘운우의 정’을 다룰 때 주로 쓰였다. 입을 만나 반가움을 표현할 때도 ‘무산무녀 본 듯’이라는 표현을 썼고 원앙금침을 깔고 부부애를 과시할 때도 무산무녀를 노래했다. 그러기 때문에 초희왕은 인간의 일을 다 버리고 무산무녀만 찾아 나섰다는 노래로 이어진 것이 무산무녀를 제재로 쓴 이유다. 신연우는

61) 이정보, 《정본시조대전》1930, 위의 책, 100면.

62) 신연우, 앞의 책, 241면.

무산 십이봉과 초양왕의 운우의 고사와 직녀를 자주 소재로 사용한 것은 조선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낭만적 사랑을 노래 한 것이어서 그렇다고 했다.⁶³⁾ 따라서 무산무녀는 사랑의 제재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천상계는 신선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포박자(抱朴子)에서 말하는 상사(上士)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옥녀(玉女), 옥황(玉皇), 월궁(月宮), 백옥경(白玉京) 등의 신선과 선어가 있다.⁶⁴⁾ 이중에서 월궁의 향아의 역할을 살펴보면,

九曲水 나린 물이 南江水 되단말가
 월궁의 내친 선녀 濯足하라 네 왔난나
 우리도 蓬萊로 가난 길이니 함께 놀기⁶⁵⁾

위의 시조는 유심영(현종조)이 금강산을 유람하고 지은 4수 중 2수다. 구곡수 내리는 물이 남강수가 되어 그 물이 맑고 깨끗하다는 이미지다. 너무 맑아 월궁의 선녀가 탁족하러 내려 온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며 우리도 선경인 봉래로 가는 길이니 여기서 놀다가 가자는 청유형이다. 월궁향이는 물 맑고 아름다운 선경에서 탁족을 하며 노니는 선녀로 묘사되고 있다. 원래 향이는 남편 몰래 불사약을 혼자 먹고 도망한 모반의 여인이다. 그러나 이 시조는 사실과는 다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세속의 때를 벗기는 탁족 의식과 신선들의 거주지인 봉래로 가자는 청유형의 노래다. 작가 유심영이 현종 13년 1837년에 친구들과 기생 세 명과 어울려 금강산에 유람 가서 지은 시조⁶⁶⁾라 하니 봉래는 금강산이고 월궁 향이는 기생들이 아닌가 한다. 향이는 시조 신화 소재로 자주 이용되나 예는 이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문학에서

63) 위의 책, 248면.

64) 한종구, 앞의 논문, 44면.

65) 유심영, 《정본시조대전》283, 문북회, 앞의 책, 162면.

66) 신연우, 앞의 책, 247면.

왕모는 자주 등장하지만 여와는 빈도수가 거의 없는 것도 한 특징이다.

직녀의 짜넌 비단 銀河의 씨여 니여
 姮娥 손을 비러 지어 니니 錦囊이라
 우리도 언제나 봉니 仙官 되면 차고 놀가.⁶⁷⁾

위의 시조는 선품을 지니고 싶다는 것을 노래하는데 직녀와 항아가 동원된다. 직녀는 고운 비단을 짜고 그것을 은하로 씻어 내어 항아가 그 비단으로 비단주머니를 짜주어 그것을 차고 놀면 봉래 선관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비단 주머니를 차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였으며 그것을 차고 놀 수 있을 때를 동경하는 여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선품에 대한 지향의식이라 볼 수 있으며 월궁항이는 숨써 좋은 여선이다.

瓊花에 玉露갠져 紫霞衫 다 젖거다
 桂樹 丹崖에 月宮이 어디 매고
 玉皇殿 鳳簫龍管은 구름 밧기 들니더라 (미상)

한자어를 많이 쓴 작자 미상의 시조다. 풀이하면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에 옥 같은 이슬이 맺혀 붉은 노을 빛 적삼이 다 젖는구나/ 벼랑에 서 있는 계수 나무에 비치는 달빛, 월궁은 어느 곳에 있는가/ 옥황상제의 궁전에 봉황을 새긴 통소와 용을 새긴 피리소리가 저 구름 밖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구나'이다. 월궁은 달 속에 있다는 상상의 궁전으로 옥황상제가 사시는 광한전이라 한다. 남편 羿의 잘못으로 하늘나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된 항이는 남편이 서왕모에게서 얻은 불사약을 혼자 다 먹어 버렸다. 신이 된 그녀는 월궁으로 달이나 그곳에서 두꺼비로 변했다⁶⁸⁾는 신화적 요소를 위에서 지적하였다. 항이는

67) 柳心永[憲宗朝], 《東遊錄》, 3794.

달 속에서 두꺼비로 변해 흰 토끼와 계수나무 한 그루와 영원히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 항아 신세에 대한 노래다.

4. 나가는 말

시조에 사용된 신화소들은 모두 중국의 신화를 원용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 신화를 이용한 고시조는 한 편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⁶⁸⁾ 이런 요소에 대해 최동원은 사대 문화의 병폐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이태극은 척불숭유 정책과 명·청의 영향권아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화소재를 보면 조선인들의 심성에 깊이 자리 잡아 일상적으로 사용한 일상어적인 단어와 인물을 알 수 있다. 부자연스럽지 않게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시구 속에 신화적인 인물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것은 『태평광기』라는 책이 번역되어 읽혔고 풍류를 좋아하는 사대부들이 초탈한 삶을 이상향으로 잡아 살아가고자 했던 조선조 사대부들의 의식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조 문학에 나타난 신선은 가시문학과 한 영향권 아래 있다고 생각되는데 노장 사상에서 비롯한 영원불멸의 사상과 무위자연 사상 수기(修己) 처방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삼신산 전설의 주인공 진시황, 한무제를 비롯한 이백의 달 전설과 서왕모 반도, 마고할미, 적송자 등 방사에 이르기까지 노래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조재역은 한국시가에 나타난 신선 사상에서 신선 사상은 보편화 되었고 선어 이용한 시기는 은일 한정 취락 등이 주제라 했으며 신선 사상은 자연을 극도로 미화시키는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⁷⁰⁾ 문복희는 신선시의 개념을 정리하였는데 장수를 기원하고

68) 신연우, 앞의 책, 243면.

69) 위의 책, 245면 재인용.

70) 조재역, 앞의 논문, 169면.

불로를 회구하기 위해 심산유곡이나 망망대해 천상 선계를 배경으로 상상의 세계 동경, 자연에 몰입하여 신선과 동일시, 자연을 관조하며 선계를 관조, 세속을 버리고 초세하여 신선의 삶 지향, 선계를 이상화하여 세속의 불만을 치유 순화, 그러나, 선적 요소를 인용하지만 선계를 부정하는 시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⁷¹⁾ 신연우는 신화 소재의 상상력이 자기만의 것이 아니고 공통의 상상이며 체험과 감정의 공유라 했다. 결국 신화 소재 시조는 완전한 자아가 아닌 공통의 것이라는 결론이다.⁷²⁾

사대부들의 전유물인 시조에서 신선은 어떤 역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시조에서 선어들이 빈도수가 많음을 기존의 연구사를 통해 밝혔고 시조라는 장르를 통해서는 신선에만 집중하였다. 그 중 적송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적송자는 사대부들이 쫓아가는 적송자로 표현하고 있어 '적송자를 쫓으리'가 관용어구처럼 쓰이고 있다. 이것은 적송자를 쫓아야만 비로소 신선 대열에 끼 수 있다는 등식처럼 되어버린 결과다. 중국의 장량이나 범려도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적송자를 찾아 신선이 되어 영원 불사했다는 역사적 사건이 변모되어 전설로 신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조를 즐기는 사대부들도 마치 장량이나 범려처럼 자신들도 적송자를 쫓겠다는 관념어적인 어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이태백은 한국문학과 뿔레야 뿔 수 없는 인물이다. 태백은 시선이며 주선으로 시조 문학에서는 비상 모티브를 가진 신선 또는 상천 모티브로 쓰이는 주선으로 노래 부르고 있어 풍류를 즐기는 사대부들에게 친근하게 인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신선으로는 진시황과 한무제를 들 수 있다. 두 황제는 불로초를 찾고 봉래산을 찾은 인물로 현실정치에서는 실각한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불로장생을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인물이어서 사대부들은 그런 면에서

71) 문복희, 앞의 책, 290면.

72) 신연우, 앞의 책, 256면.

이상적인 이상향은 없다는 다분히 현실적으로 다가가 유교사상에 입각해 현실에 만족하며 살지는 자족형으로 시조를 부르고 있었다. 따라서 두 황제의 역할은 부정적 이미지다. 시조에서 여선들도 등장하는데 그 중 마고선녀, 서왕모, 무산신녀, 항아가 있다. 마고 선녀는 장수를 관장하는 할머니로 때로는 미녀로 쓰이고 있으며 서왕모는 불사약을 가지고 있는 신선으로 무산신녀는 운우의 정을 대변하는 미녀로 항아는 남편을 배반하고 외롭게 월궁에서 지내는 신녀로 표출되고 있다. 이들 선녀의 특징은 미녀이며 자상하고 섬세하며 애정시에 두루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명희, 「난설현과 소설현 시에 나타난 서왕모」, 《우리문학연구》제17집, 우리문학회, 2004.
- _____, 「산동성 연태 지방의 신화 전설」, 《온지논총》제17집, 사단법인 온지학회, 2007.
- 문복희, 『한국 신선시의 이해』, 형성출판사, 2005.
- 박기정, 「도교문학과 가사문학」, 《국어국문학》114, 국어국문학회, 1995.
- 박양기, 「가사문학의 도교 사상적 배경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6.
- 성기옥, 『국문학과 도교』, 태학사, 1998.
- 신연우, 『조선조 사대부 시조문학 연구』, 보고서, 1997.
- 오문의, 「서왕모 신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유향 지음, 김장환 옮김, 『列仙傳』, 예문서원, 1996.
- 육완정, 「서왕모 신화의 문학적 수용」, 《인문과학 연구 논총》13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95.
- 이봉원, 「시조와 가사에 반영된 신선사상 연구」, 《덕성여대 논문집》2, 덕성여자대학교, 1973.
- 이상원, 「조선 중기 시조의 신선 모티브 수용과 그 역사적 의미」, 《어문논집》32, 민족어문학회, 1993.
- 이성규, 「한무제의 서역원정. 봉선. 황하치수와 우. 서왕모 신화」, 《동양사학연구》72,

동양사학회, 2000.

이종은, 「한국시가의 도교사상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1978.

이창룡, 「시조 문학에 나타난 현실도피사상」, 《한국국어교육 연구》3, 한국어국어교육 연구회, 1973.

전일환, 「시조 가사에 나타난 도가사상」, 《한국언어문학》21, 한국언어문학회, 1982.

전재강, 「도가 관련 시조의 작자와 주제 문제」, 《어문학》73집, 한국어문학회, 2001

조재익, 「한국 시가에 나타난 신선 사상」, 《국문학 논집》2, 단국대 국문과, 1968.

천혜숙, 「여성신화 연구 대모신 상징과 그 변용」, 《민속연구》1, 안동대학교 민속학 연구소, 1991

최동원, 「도가사상과 도교 사상이 국문학에 미친 영향」, 《부산대 논문집》10, 1969.

표정옥, 『현대 문화와 신화』, 연세대 출판부, 2006

한종구, 「시조 문학에 나타난 도교 사상」,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0.

황형식, 「16-7세기 사대부 시조에 나타난 도교의식」, 《우리말글》21집, 우리말글학회, 2001

〈Abstract〉

Literature of Korean Verse, Sijo and Taoist Hermit

Kim, Myeong-hee

This study observed what roles and identity the Taoist Hermits have when they appear in Korean Verse, SiJo, which was preoccupied by the illustrious-officials in Choseon Dynasty. This study has found that languages of Taoist Hermit frequently appear in SiJo, through the historical study documents focusing on only the mountain wizards in terms of the genre, SiJo.

Of those terms used by Taoist Hermit, most prominent was 'JeokSongJa', which was expressed as that sought by the illustrious-officials—they were using the sentence, 'I will follow JeokSongJa' to the extent that it is an idiom. This suggests that the illustrious officials in ChoSeon Dynasty meant if one was going to be entitled to become a Taoist Hermit, he should seek 'JeokSongJa' first. We can see those illustrious officials were using the words with a ideological tone, affected by then 'JangRyang' or 'BeomRyo' who were devoting themselves to finding 'JeokSongJa' with a belief that they could become a Taoist Hermit and live forever, which had been handed down as a legend or a myth. Meanwhile, Li Po is a profile who can not be considered, separately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Li Po recited poems, as a great poet and a hard drinker, who were incited in SiJo of those illustrious officials as an intimate person. In contrast, among those who were accepted as a negative profile, were a Chinese Emperor JinSi and HanMuje. These two emperors, who were looking for a herb of eternal youth and Mt. BongRae, figures who had lost their positions in the real political circle. In addition, they couldn't make their dreams to get perennial youth and long life come true, which stimulated the illustrious officials of that time to recite those poems indicating there is no ideal Utopia so it's better to be satisfied with the reality living up to the realistic idea of Confucianism. In this sense, those two emperors are negative. There are also women Taoist Hermits present in SiJo, including MaGo nymphs, SeoWangMo, MuSanShinNyo, and Hang-A. MaGo

nymphs were grandmothers who superintend the longevity, often incited as a beautiful woman; SeoWangMo was a Toast Hermit who had an elixir of life; MuSanShinNyo is a beautiful woman who was representing the attachment of cloud friendship; and Hang-A is expressed as a goddess who betrayed her husband and as a result staying lonely in the moon palace. These women goddesses were characterized by their beautiful appearances, generous and delicate personalities, widely incited in romantic poems.

Key Words : An illustrious official, Literature of Korean Verse-SiJo, JeokSongJa, Taoist Hermit, Women Taoist Hermits

이 논문은 2008년 11월 30일(월)까지 투고 완료되어,
2009년 1월 4일(일)부터 1월 14일(수)까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2009년 1월 22일(목)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